비구니스님 된 印 배우…SNS 포교 '활발'

바르카 마단, 출가 13년 차
영화 출연, 연출 등 커리어 접고
달라이라마 가르침 감명, 출가
영적 수행, 지역사회 봉사 헌신

박정현 객원기자



바르카 마단의 출가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사진출처=로컬 하리야나

뛰어난 연기 재능으로 인기를 휩쓸었던 인도 배우 '바르카 마단(Barkha Madan)'이 출가해 비구니스님이 된 이야기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올해로 출가한지 13년째인 그가 SNS 상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에 큰 영감을 선사해서다.

인도 하리야나주 지역 매체 '로컬 하리야나'는 1월 13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마단이 영화 산업을 떠나 영적인 길로 접어든 과정을 소개했다.

바르카 마단은 1994년 미스 인디아 대회에 참가해 '미스 관광 인디아'로 선정되며 연예계에 진출했다. 이후 인도의 유명 배우 아크샤이 쿠마르(Akshay Kumar)와 함께 액션 영화 'Khiladiyon Ka Khiladi'(1996)를 촬영했고, 공포 고전 영화 'Bhoot'(2003)에도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후에도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그러던 중 마단은 영화 연출에 도전, 영화 'Soch Lo'(2005)와 'Surkhaab'(2012)의 연출자를 맡았다. 해당 영화들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아 마단은 인도영화계의 명실상부한 유명인사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다.

수많은 영화를 촬영하고 연출하며 커리어를 쌓아오던 마단은 2012년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다. 마단은 2012년 11월 세라 제이 사찰(Sera Jey Monastery)에서 출가해 비구니스님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마단은 영적 수행과 지역 사회 봉사에 헌신했다.

마단의 출가에는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전해진다. 로컬 하리야나는 "마단은 불교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은 후 명상과 자비의 삶을 추구하기로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말했다.

마단은 현재 SNS 상에서 팬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컬 하리야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녀가 배우로서 명예보다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적이라며 칭찬한다"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가 성공적인 경력을 뒤로 하고 떠난 것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대중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간 인도 유명인사들 사이에서 영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마음챙김과 자기탐구를 향한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단의 경력과 출가 이야기, 현재의 삶은 현대 사회의 혼란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달라이라마, 티베트 강진 피해자 위로 기도회

1월 9일, 인도 사찰서 집전
中 외교부 '경계 성명' 발표



따씨훈뽀 사원에서 대중들과 위로기도를 올리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1월 7일 티베트 자치구에서 강진이 발발해 지역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 이에 티베트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1월 9일 망명지인 인도에서 피해자 위로 기도회를 집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7일 오전, 중앙티베트 지역의 시가쩨시 딩리 지구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26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이재민 6만여 명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달라이라마는 보도 당일 즉각 위로 성명을 발표하고 1월 9일 오전 남인도의 따씨훈뽀 사찰에서 위로 기도회를 집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위로성명을 통해 "딩리와 주변 지역을 강타한 참혹한 지진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며 "희생된 분들을 위해 기도 드리며, 부상당한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기도회에는 따씨훈뽀 대중스님들과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현지 소식통들은 "지진이 일어난 시가쩨에도 따씨훈뽀 사원이 있다.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지도자 판첸 라마의 주석 사찰"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달라이라마가 따씨훈뽀 사찰에 방문 중 티베트 시가쩨에 지진이 일어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다 기도회를 집전한 것은 큰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이라마는 약 한달 가량 남인도에 머무르기 위해 1월 5일 빌라쿠피의 따씨훈뽀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위로 성명을 두고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8일 기자회견에서 '경계 성명'을 발표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 당국은 달라이라마의 위로 성명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면서 "티베트 자치구의 재해는 중앙당의 지도 하에 극복할 것이며, 우리는 달라이라마의 분리주의적 정치 의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대만 불교계, 태풍 피해 태국에 구호품 전달

UN NGO기구 '불교 자비회'
피해지역에 구호품 · 성금 기탁



불교 자비회는 태풍 야기로 인해 피해 입은 이재민에게 집을 재건해주기도 했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대만에 본부를 둔 글로벌 자선 인도주의 단체 '불교 자비회(Tzu Chi Foundation)'가 지난해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민들에게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 도어'는 1월 13일(현지시간) 대만 불자들의 자비나눔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초 발생한 11호 태풍 '야기(YAGI)'는 동남아시아를 휩쓸었다. 야기는 중국,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파괴 흔적을 남기고 소멸했다. 태풍으로 인해 태국민 83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채의 가옥과 인프라가 파괴됐다.

불교 자비회 측은 "치앙라이 린코와 매사이 지구 상황을 즉시 파악해 500개의 구호 물품을 배분함으로써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켰다"면서 "홍수로 인해 많은 마을에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자비회 태국 사무소는 지난 10월 4일부터 4일간 농촌 지역을 조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매사이 지구 관계자는 "매사이를 대표해 불교 자비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따뜻한 후원과 도움의 손길은 우리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힘과 용기를 줬다"고 감사 인사했다.

불교 자비회의 지원을 받은 마이야모 마을의 한 주민도 "홍수로 집과 가게가 파괴돼 절망에 빠져 있었다"며 "불교 자비회에서 제공한 성금은 생명의 끈과 같다. 불교 자비회가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손을 내밀어 준 것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불교 자비회는 1966년 대만의 정연 스님에 의해 설립됐다. '자비를 실천에 옮긴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 공인 비정부기구(NGO)로 활동 중이다.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 사무소 432개와 후원자 약 1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의료, 교육, 환경 지속 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골든글로브 시상식서 퍼진 "나무묘법연화경"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스페인 배우
일련종 신도…연화경 3회 염송
스님 가사 모티프 드레스 착용도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불교적 가치를 수상소감에 이야기한 영화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사진출처=USA 투데이

스페인 출신 여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묘법연화경"이라고 염송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10일 'NBC 뉴스' 'USA 투데이' 등 외신들은 차별에 반대하는 불교 가르침을 전한 수상 연설에 대해 보도했다.

1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82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의 배우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은 수상 연설에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나무묘법연화경"을 3회 염송했다.

일본불교 종파인 일련종을 믿는 것으로 알려진 가스콘은 이날 스님들의 가사를 모티프로 한 디자인과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불교를 상징하는 색의 의상을 입고 이 자리에 왔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가스콘은 "빛은 항상 어둠을 이긴다"며 "누군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존재와 영혼,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에게 자유를 위해 목소리 높여달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가스콘은 2018년까지 '후안 카를로스 가스콘'이라는 남성 배우로 활동했다.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여성 배우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커밍아웃의 불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당하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2025 신상출시

NEW 신상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